버려진 벤츠600

(막14:43-52)

43.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46.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48.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 베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버려진 벤츠600>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버려진 벤츠600'

미국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일 년 간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는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은 걸려야 되는 뉴욕의 롱 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강을 부탁을 했습니다, 저한테.

특강 요청이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이라서, 생각하다가 수락을 하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평소에 미국에 간 이후로는 가까이 지내던 교민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주일날 당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부터 그 특강이 시작이 될 건데, 아침 일찍이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롱 아일랜드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고 또 거기서 함께 있다가 저를 집까지 데리고 오시겠다고 고맙게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얼른 뛰어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늘 가까이 지내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타고 다니던 차를 알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 그런데 처음 보는 벤츠600을 딱 몰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난 딴 분 인줄 알았더니 문을 쓱~ 창문을 여시면서 '아! 목사님 어서 타세요!'
놀라서 올라타고는 롱 아일랜드로 가면서 제가 물었지요, '아니 도대체 이 무슨 차냐?' 그랬더니 거래처에서 고맙다고 선물을 한 차랍니다.
그런데 차가 벤츠600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예를 들어, 런던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그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벤츠600시리즈 중에서 특별히 뭔가를 좀 바꾸거나 덧붙여 가지고 한정판을 만듭니다.
100대면 100대, 그래서 사람이 올라타는 자리에 보면은 자동차 문지방에 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실버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딱 배겨서 쓰여 있어요.
아~ 이렇게 좋은 차를 한 번도 안 타고 다니셨냐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어제 목사님 모신다고 그저 겨우 차나 씻고, 안에 있는 먼지나 좀 털었습니다' 그래요.
먼지를 털다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선물을 받은 뒤로 몇 번 타보고는 2년 동안이나 그냥 차고에 박아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엔진오일을 한 번도 안 갈은 거예요.
야~ 세상에 태어난 벤츠600 스페셜 에디션 중에서, 그렇게 박대를 받은 차가 있겠습니까?
제가 괜히 그 벤츠 자동차한테 막 미안한 겁니다.
네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차가 아닌데, 2년 동안 세상에 먼지가 뽀얗게…
그리고 그 분은 보통 때 일본에서 나온 렉서스라는 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 제사장의 졸개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잡히십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것까지 붙여주시면서, 아~무 저항 없이.
귀를 붙이실 수 있는 그런 분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께서, 그 어떤 저항도 없이 그냥 잡히시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마가라고 추측하고 있는 이 홑이불을 덮고 있던 벌거숭이 청년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잡히신다고 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님은 마치 저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파도가 출렁임에 따라서 아~무 힘없이 파도가 들어오면 해변 쪽으로 눕고, 파도가 부딪쳐서 나가면 바닷가 쪽으로 눕는 해초처럼, 물결 따라 좌우로 사방으로 움직이는 아~무 힘없는 해초처럼, 그렇게 맥없이 때리면 맞으시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시고, 누가 고소를 해도 항변 한번 안 하시고, 그대~로 죽은 자처럼 진행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특이한 광경이라는 얘기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이.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분노를 샀을 때조차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 잡듯이 와서 잡아갑니다, 근데 잡혀 가십니다.

자, 이 두개의 시점의 차이가 뭘까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대로,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과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너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것만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안 잡아갔어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잡혀가십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 입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입과 주님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의 연합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중단해 버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도 없으신 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죄를 삼으셨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이 중단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가 없는 분을 죄가 있는 자들이 처해야 될 저주의 상태,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그 상태로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자, 이게 시점의 차이인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저주에 진짜로 마음이 던져졌을 때, 죄도 없는 분이지만 인간이 처해져 있는 저주 속으로 던져지셨을 때, 깜짝 놀라시고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그리고 지금도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동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입장은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놓여 진 상황이 동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진 채

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저주의 상태 속으로 던져지시면서 모든 인간과 동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비교해 봅니다.
동등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버린 동등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비교해 봅니다.
공자님과 비교해 봐요, 예수님을.
참 유치한 비교지마는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누가 더 지혜 면에서 뛰어나겠습니까? 누가 더 능력 면에서 뛰어나겠습니까?
공자는 평생을 수련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자의 이상을 마음에 품고 모~든 경전을 통하여 인격을 수련하던 사람이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깊이깊이 느끼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자라 하더라도 그도 죄가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다~ 제외하고 나서라도, 그냥 인간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정의(知情意)의 생각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 감정에 있어서, 그 뜻 하시는 바 의지의 면에 있어서, 그 능력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능가할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일국의 황제만 되어도 자칭 함부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천황이다, 하늘의 아들로서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께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에게 잡혀버리십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스스로 만으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단지,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쓰지를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당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동등 됨을 취하시지를 않은 것뿐이지 당신은 하나님 이십니다, 존재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라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고도 인류역사 이 지구 위에 태어나고 마지막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을 통틀어 최고의 인간이신 분이, 시동을 꺼버리십니다.
생각을, 시동을 켜시기만 하면 벤츠600 Special Edition이고, 당신의 감정을 일으키시기만 하면 스포츠카 중에 최고라고 하는 5~6억 한다는 그 람보르기니인데, 그분의 의지를 시동을 켜시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자동차인 롤스로이스이신데, 다~ 시동을 꺼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을 바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인간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하신 그 생각의 능력, 가장 탁월하신 감정의 능력, 가장 탁월하신 의지의 능력의 시동을 꺼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집어 넣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생각들은 다~ 시동을 꺼버리겠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차고에서 번지가 뽀~얗게 내려앉도록 시동 한번 걸리지 않은 채 버려진 벤츠600 스페셜 에디션! 브랜드 뉴! 완전 새 차, 버려진 거예요, 시동이 꺼진 채로.

자 여러분, 이게 뚜렷~하게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과 이 삶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그 태도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 되었을 때에 이런 태도를 견지했다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가짐을 견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끝난 것이고 연합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아담이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 봅시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바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잘 먹고 잘살아서 무엇 하겠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바에는 차라리 내 모든 능력의 스위치를 다~, 시동을 꺼버리겠다. 그리고 누가 와서 나를 때리면 맞고 누가 와서 나를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죽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주변의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시동을 켜서 생각의 시동, 계획의 시동,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소원의 시동을 전혀 켜지 않고 차라리 죽어버리겠

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끝난 모~든 인간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그 알량한 능력과 그 알량한 생각들의 시동을 24시간 켜놓습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고차들을 많이 사서 웬만한 것은 스스로들 수리를 해 가면서 탑니다.
이럴 때 한 10년 된 차일경우에 부품을 새것을 끼운다는 건 참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모든 부품은 10년 됐는데 한 부품만 새것으로 끼운다고 차가 새것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폐차장에 가면 같은 종류의 차들이 산 같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중고 부품 중에 쓸 만한 상태인 것을 골라서 내가 떼어 갖고 와서 사무실에서 계산을 하고 갖고 오는 겁니다, 내가 떼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능력이라는 것은 폐차장에서 뜯어낸 부품과도 같은 것인데, 그 알량한 능력들의 시동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내가 디자인한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시동을 걸고, 부르릉~부르릉 걸고, 그 잘난 시동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얘깁니다.

주님의 능력은 공자가 비교될 게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비교가 될 게 아니고, 칭기즈칸이 비교가 될 게 아니고,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비교될 게 아닌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빼고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분 자신만의 능력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끊어진 그런 상태라면,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시고, 고소를 하면 듣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모든 능력의 시동을 꺼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바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을 쓸 일이 하나도 없다.’
저주로 던져지신 예수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당신의 능력을 아버지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조금도 쓰지 않고 시동도 걸지 않

은 그 마음의 태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랬던 것일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옆집에서 박 씨 아저씨가 잘되는 거 보니까 나도 잘되고 싶으십니까?
그 소원을 끄세요.
그런 것을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의 능력의 시동을 끄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그 알량한, 예수님의 벤츠600스페셜 에디션과 같은 것이 아닌 폐차수준에 불과한 우리의 모든 능력의 시동을 끄게 해주십니다.
그 시동을 끄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 바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 바에는 나의 의지를 작동하지 않겠다.
주님의 이 태도가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연합되지 않고 아버지 내 안에 모셔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면 내 알량한 그 어떤 능력도 시동을 걸며 내 인생을 한 번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벌려보겠다고 시동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보다도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 되어야 된다. 연합되지 않을 바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면에서 시동을 끄겠다.'
이 태도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이고,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을 꺼버립니다.
주님조차도 인간으로 오셔서 살고 계시는 동안, 아버지와의 연결이 끊어져서 아버지께서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벤츠600스페셜 에디션 같은 생각의 능력을 끄시고, 람보르기니 같은 당신의 감정의 능력을 끄시고, 롤스로이스 같은 당신의 의지의 능력을 다~ 꺼버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시동을 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와서 당신의 능력대로 행하시기 전까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주님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는 바에는 당신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조차도 시동을 걸지 아니하시고,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에게 그대~로 당하시며, 그 과정을 지나신 그 모습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의 시동을 끈 채로 아버지만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